

들이 믿음으로 구원하는 수동적 경향과, 그리스찬 삶의 역동적 순종을 위한 필요성 사이에서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러한 퓨리탄의 해결은 특히 이것이 어떻게 자기성찰적인 순종의 본질이 도출되며 외부적으로 직접적인 믿음으로 인도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그리하여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의 존재로서 의미있게 되는 것이다. 人間의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하는 것은 무엇이며 초자연적인 역사, 신자의 성화에 사용되는 자연적 도구는 무엇인가?

신자의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고정되고 완전한 구원을 포함하며 날마다의 순종, 하나님의 불변하는 의지에 대한, 그리고 그의 무한한 선함에 대한 보다 깊은 지식에 더 가까이 따르게 함으로써 신자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보게하는 평가도 포함한다. 이리하여 신자는 영원에서부터 그의 구원의 위대성을 완전히 깨닫게 되는 것으로 자라간다.

이것은 퓨리탄인의 확신교리의 매우 희망적 소식이다. 자기-의인이나 심지어 자기확신의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또다른 사역에 있는 믿음의 가벼운 멍에이다.

서평(Review)

반게머런의 구속의 진전 : 창조로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의 구원 이야기(Grand Rapids : Academie, 1988, pp 1-544) 책소개

서평 : 박종철 교수

서평보다는 “책소개”라고 표제를 부침은 일반적 서평기준에서 보다 학생들을 위해 책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이 있어서이다. 현재 미국 Jackson에 있는 리폼드 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반 게머런의 Progress of Redemption: The story of salvation from creation to the New Jerusalem 은 게 할더 보스의 성경신학-반 게머런 자신이 이 책에서 많은 신세를 입은 것을 인정하지만 (p. 15)-이 나온 이후 괄목한 작품으로 보아진다.

구약학자들이 구약 계시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연구를 통시적으로 (diachronically) 하다보면 어느 한 시기의 단면만 보게되는 단편화 되는 결과를 반 게머런 교수는 지양하고 성경 역사 속에 계시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공시적으로 (synchronically) 관찰하며 현재 본문의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 그렇다하여 그가 계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에 대한 주목을 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다. 그의 책명 구속진전이 의미하듯 이 두가지 태도를 잘 병합하여 성경 계시 내용의 통일성과 진전 내지 문학적 아름다움을 보여주려고 한다. 그는 역사에 꿰뚫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합하는 사역 (God's great unifying work in history)을 찾으려고 하는 그의 열심이 구약학자인 그로 하여금 신약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심지어 교회사에서 까지도 그 일관된 하나님의 사역을 찾으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구원의 여러 시대를 조직적으로 나누어 각 시대마다 다른 구원 조건을 요구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그가 교회사까지 뛰어들어 하나님의 통일된 사역을 찾으려 함은 흔히 요즈음 주장하는 “계속하는 계시” (continuing revelation)가 있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계속하는 구원 역사” (continuing history of salvation)가 있다는 확신에서일 것

이다. 그래서 저자는 구속사적 의의를 “구속의 모든 다른 단계들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의 빛에서 각 시대의 상관성”(relevancy of each period in light of God's purposes in all other stages in redemption, p. 15)으로 본다. 이 점에 변종길 박사의 간단명료한 구속사 정의를 인용하고 싶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고 일어날 성경에 있는 신적활동들의 주된 흐름들”(the main stream of devine acts in the Bible which took place and place successively in history according to God's plan, The Holy Spirit WAS NOT YET, p. 9)이다. 게머런 교수는 이러한 윤곽에서 글을 쓰고 있다 하겠다.

반 게머런의 확신은 “성령의 중심은 성육되고 영화된 그리스도로서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새롭게 되어질 것이다”(p. 27)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그의 회복은 점진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저자는 구속사를 12시기로 나눈다. 조화된 창조(창1-2), 소외된 창조(창3-11), 선택과 약속(창12-50), 거룩한 나라(출-수), 타 국가와 같은 한 나라(삿1-삼상15), 왕정나라(삼상16- 왕상11, 대상1- 대하9), 분단 왕국(왕상12-왕하25, 대하10-36), 회복된 나라(스, 느, 선지서들), 예수님과 왕국(복음서들), 사도 시대(행, 서신들), 왕국과 교회(—), 새 예루살렘(창3:1-계22:21)(p. 33)이 시기마다의 구속 계시의 의미와 상호 연관성의 점진하는 모습을 얻기 위해 그의 독특한—사실은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것을 종합한 것이다—3중적(trifocal) 방법을 사용한다. 그의 책 43면에 나타나는 도표는 저자의 해석 원리를 잘 밝혀 주고 있다. 본문은 먼저 전통적으로 강조되어온 역사적 문법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단어, 구, 문법, 구문론이며 구절과 문단들의 관련성이며, 본문 비평 및 관련 병행 구절 속에서의 본문의 사용이나, 구약 성경 속에서의 인용도 검토한다. 또한 문화적, 사회 경제학적,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연구한다(p. 28). 이 단계 다음에 그 본문이 처한 개체책에서와 그리고 전 성경에 비추어 보므로 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이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한다.

이 방법은 우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라는 전제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삼위 일체이신 하나님과 하늘과 땅을 새롭게하기 위한 그분의 거대한 계획과 관련된 인간 구원과 삶의 목적을 잘 나타낸다. 인간의 말로서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쓰여졌고 성령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문학 작품으로 그 자체도 독특한 문화들과 관련되어 있다.

이런 전체 바탕에서 그의 3중적 방법은 문학적(literary), 정경론적

(canonical), 구속사적(historical-redemptive), 문맥 곧 성경 전체 속에서의 의미를 찾는 해석 과정이다. 우선 문학적 문맥이 고려되는데 여기서는 각 본문의 문체 및 구조는 그 본문의 의미와 목적과 뉘그러야 뉘 수 없는 관계에 있기에 특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정경론적 문맥은 성경이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발전했다는 인식과 함께 연구되어진다. 정경들과 관계(오경, 선지서, 성문서), 정경이 주어진 시대,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원래 받았던 역사적 문맥에 대한 연구도 성경책의 기능을 잘 볼 수 있다. 여기서 반 게머런 교수는 본문의 의미에 대한 진정한 관점을 얻기 위해서는 공동체 가운데 있는 본문의 기능에 예민해야 한다고 하는 Brevard S Childs의 주장에 깊이 영향 받은 듯 하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문맥을 말하는데 “이 방법은 성경의 부분들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연결하는 구조(framework)를 제공해 준다. 그러나 그것 역시 많은 주제들을 하나의 모자이크로 나타내 준다”(p. 32)고 하고는 동시에 “이 구속사 연구는 역사, 문화, 문학적이며 신앙 공동체의 원래 문맥에서 주어진 본문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하므로 인간의 의사 전달이며 문명의 회로들을 존경한다”(ibid)고 한다. 이는 곧 본문을 시대 발전 경과와 함께 통시적으로 보면서 그것을 성경 전체와 연관시켜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환언하면 지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과 창조자와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이다(p. 59). 예컨대 요셉 이야기에서 우리는 요셉 자신이 말한 하나님의 경륜이 전체되어 있음을 안다(창43:7-8). 하지만 그 과정에는 야곱의 탄식과 눈물, 또 의외의 기쁜소식(창42:36; 43:6,14등)들이 있다. 분반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면서 요셉이 언제 자신을 나타낼 것이며(42:24, 43:30-31, 45:1-2)또 도적질한 것으로 생각해서 시몬과 베냐민을 잡아 두는일(44:12), 야곱이 베냐민을 자기 형제들과 함께 가도록 할 것인지(42:28, 38)하는 인간적 괴락과 서스펜스가 함께 있다. 이렇게 비밀스런 하나님의 경륜에 가려진채 역사의 회로에락이 함께 가는 것이다(p. 113). 이 모든 것이 구속사에 엮여지는 요소이다.

이 3중적 종합이 이루어지면 적용에 의해 실제화 되어야 한다. 이 적용은 별도의 장(chapter)을 만들어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 취급에 계속 결부시키므로해서 이론과 실재가 연결되도록 하는 저자의 의도인 것 같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독교적 적용을 한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의미는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신 메시아신 예수님에게로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회복은 아직까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기에 세상 끝을 내다보는 종말론이다. “신자의 신적 생활은 신 중심적이고 성육적인 것 뿐만 아니라 역시 미래 지향적이다”(p. 168). 이 기독교론과 종말

론에 의해서 신구약의 대조는 사라지게 되고 한 성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리하여 반 게머런 교수는 성경 생도들에게 적실성이 되기 위해서는 한 발은 성경 세계에 한 발은 오늘의 세계에 딛고 서야 한다고 한다(p. 36).

이러한 이론적 근거에서 반 게머런 교수는 본서를 이 삼중적 방법에 따라 면밀히 조직화 시키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구속사를 12파트(시기)로 나누고는 각 시기마다 대략 3장씩 배분하여 그 파트의 본문의 문학적, 정경론적, 구속사적 내용을 순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의 문학적 구조를 취급함에 (1, 3, 7, 10, 13, 16, 19, 23, 27, 28, 31, 32, 36장) 성경 이야기의 실제 구조가 본문의 의미를 얼마나 촉진시키고 있는지를 사려깊게 증명하려는 예들이 많음을 본다. 예컨대 아브라함의 생애의 연속되는 사건들이 이 주장의 주님과 그의 신앙 투쟁이 창16장을 전후해서 대칭을 이루게 하므로 잘 나타나도록 해야한다(p. 111). 야곱의 생애에서도 하나님의 두 번 나타나심(창28:10-22과 35:1-15)을 사이에 두고 야곱은 라반, 에서, 세겜인들과 투쟁을 하게 되는데 그 투쟁의 성격은 각각 자손, 축복, 땅과 열국에 대한 약속이 핵심이 되고 있다. 이런 투쟁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만을 알기 원하고(32:29) 그곳이 브니엘(하나님 얼굴)임을 알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p. 112). 그리고 출애굽기 전 책을 간단 명료하게 대칭적으로 요약하여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p. 135) 여호수아서도(p. 143), 사무엘서에 대해서도(p. 189) 마찬가지로 대칭적 배열을 하므로 전 책을 일목 요연하게 보게 한다. 사사기 초반에서는 유다의 지도하에 가나안인들을 어떻게 맞대싸웠는지를 보여주는데(삿1:1,2), 결론에서는 유다의 지도하에 자기의 민족인 베냐민을 대항해서 싸웠던 것을 보여준다(pp. 194) 특히 사무엘서에 대해 말한다면 비평가들이 흔히 통일성이 결여된다는 주장에 반대하여 반 게머런 교수는 한나의 노래에서 시작되는 동인들—즉 거룩한 자이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주께서 모든 활동들에 주권적이어서, 용사의 활을 꺾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기름 부은자의 뺨을 높이시는 분(삼상 2:2,4,7,10)—이 전개되어 전쟁을 쉬게하며, 실로의 성전을 파멸시키고, 사무엘을 제사장장으로 일으켜서 힘센 사울을 넘어뜨리고 보잘것 없었던 다윗을 일으켰다. 이리하여 책의 마지막에 있는 다윗의 노래(삼하21-24)는 이 한나의 노래 말들을 반영하므로 절정을 이루고 있다. 즉 다윗 역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찬양하고 메시아를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승리를 주시는 반석으로 나타낸다(삼하22:2, 47).

삼중적 방법의 둘째 방법인 정경론적 방법은(2,5,8,11,14,17,20...) 각

시기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들의 신학이 어떠하였는지를 보여준다. 창1-2장은 이스라엘인들의 credo(신앙고백)이며 구속사의 전주곡으로서의 창조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위대한 왕의 영광, 의, 능력의 지혜)를 나타내준다(pp. 52-58), 출애굽기—여호수아까지의 시기(11장)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된다. 하지만 이 특권이 자연 생득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자 야웨가 계시기 때문이며 동시에 신앙과 회개의 헌신이 요청된다. 이런 긴장이 있는 정경론적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 1) 이스라엘의 속성—하나님 아들로써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열국들의 찬양으로서의 이스라엘
- 2) 하나님의 속성과 모세를 향한 계시—언약 하나님 야웨가 능력있는 행위를 하시는데 그 속성은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자비하시며, 오래 참으시고, 사랑과 신실하시며, 용서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 3) 하나님의 임재와 모세 언약
“오경의 증거들은 자기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의 위대성을 진술하는데, 곧 그들과 거주하시면서 자기 율법을 계시하시며 그의 임재로서 언약 생활의 모든 영역을 성별시키신다. 곧 향연과 축제, 제물과 제사, 안식일이며 성전 원근에서 이루어지는 저들의 가정 생활—노동, 쾌락, 언약의 마을이며 성읍들을 포함하고 있다”(p. 155) 그리하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왕적 법의 규정들(the sanction) 하에서 자신에게로 성별 시킨다.
- 4) 이런 언약적 공통 전통, 공통 경험을 가진다는 신앙과 충성, 왕적 제사장으로 구별된 생활과 미래 지향적 개인 결단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구속사적 방법은(3,6,9,12,21장등)천지 창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주제 동인들이 진전하는 모습을 추적하므로 독자들에게 하나님 구원 계획의 진전과 통일성을 보여준다. 이 모든 장들은 결론에 가서는 그리스도를 피조물의 위대한 회복자이며 소망이라는 말로 결론적 적용을 한다. 1시기(창1-2장 pp. 59-62)에서 자연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으로 지칭된 것을(렘33:25 비교 욥38:33, 렘31:33) 게머런 교수는 “통치”(rule)란 말을 대신하고는 하나님의 통치 성격을 질서와 능력과 신실성으로 규정짓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상 통치의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맞추므로 안식일을 성별시켰다. 창3-11장의 제2시기에서는(pp. 85-94) 욕심에서 잉태되어(창3:6) 죄와 죄의(guilt)이 발전하여(3:6-8) 부패로 장성하여(4:1-16, 6:1-9:17) 종래에는 창조자 통치자를 완전히 반역하는데로 악

어갔다(11:1-9). 그러나 인간의 삶이 하나님과 소외됐어도 하나님은 원시 복음(3:15)안에 소망이 배태되어 이것이 셋, 에녹, 라멕, 노아, 셈 대를 이어 소망을 주다가 이들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소망이 이루어진다(눅3:33-37, 요1:14) 4째 시기인(출-수, pp. 169-177)에서의 구속사적 의의는 1) 이스라엘 하나님 왕권이 수립되는 것, 2) 그 왕권을 계속 보호할 수단으로 신정 직분자들을(제사장, 선지자, 왕), 세우는 것 3) 족장들에 대한 4가지 약속들—자손, 땅, 하나님 임지와 보호, 열방에 대한 축복—이 성취되면서 진전되고 있다. 6째 시기(삼상16-왕상11)의 구속사적 큰 의의는 무엇보다 다윗 왕조가 선택됐다는 것과 그 언약 성격이 의무적인 것보다 약속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약속이 솔로몬왕에서 많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종말론적 차원을 갖고 있어 예수 안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pp. 230-237). 특별히 18장에서 저자는 성경적 언약 사상의 일관성(unity)을 도표로 일목 요연하게 밝히고 있다(p. 234).

반 케머런 교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역이 역사에 펼쳐질 때에 하나의 일맥 상통한 통일성 및 다양성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열심이 중간 시대를 걸쳐 신약과 교회사 시대를 망라한 광대한 역사적 범위를 474면으로 기술하다보니 요약적 기술이 된다. 그러나 그 안목의 폭은 광범위 하고 깊이 있게 다룬다. 그리고 474-515면에 수록된 footnote들은 많은 신학적 정보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

반 케머런 교수는 보스의 노선에 따라 구약 계시의 절정을 모세 시대로 보고 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시내산의 야웨 계시 문맥에서 그(하나님)는 이스라엘에게 그가 창조자임을 알리셨다”(p. 52)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왔다. 이스라엘인들은 저들이 애굽에서 구속된 문맥에서 야웨 이름의 계시와 족장들에 대한 그의 약속들을 처음 받았다”(p. 78)고 한다. 이렇게하여 창3-11장의 정경론적 관점을 취급하면서, “이스라엘 선택”이라는 제목을 걸고는 그 성경적 준거로 출19:4-6과 신7:7-8을 들고 있다. 그리고 창12-50의 정경론적 관점을 말하면서 “출애굽시에 나타난 큰 구원 문맥에서 야곱의 후손들은 저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저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였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서는 출3-4, 6장의 준거를 준다(p. 116). 이러한 말들은 모세 시대의 공동체가 처음으로 계시를 받았던 양으로 말하므로 반 케머런에게는 모세 신학만 있고 족장 시대의 신학은 없는 것처럼 오해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모세 시대의 공동체가 족장 시대의 신학을 뒤에서 반영해 내었다는 의미에서 보다는—사실 이런 신학은 폰 라트 이후 웨스트만, 짐머리에서 나타난다—출애굽 이후 공동체가 된 이스라엘인들이 저들의 구속 관점에서 창조와 족장 시대의 의미를 더 되새기기 시작했다는 의미겠다. 그 스스로도 창

조 계시를 말하면서 “이 계시는 출애굽의 이스라엘에게와 그 이전 아브라함에게도 알려졌다”(pp. 56)고 하고 있다.